

# 익산시 장점마을 환경정화

###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 주변 오염 토양 모두 제거 농경지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 힐링 이미지로 탈바꿈

익산시가 장점마을 일대 환경 오염 물질을 모두 걷어냈다. 시는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장점마을을 환경 재난의 원인으로 밝혀진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과 금강농산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축적 우려가 높은 인근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 토양을 모두 제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익산시가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장점마을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해 환경정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주민들의 건강

과 직결된 주택 내부와 지붕 등에 침적된 먼지 제거사업을 완료했고, 위해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염 토양이 제거된 금강농산 주변 농경지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해 그간 환경재난으로 고통받던 이미지를 탈피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돋보이는 마을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도 함께 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구 금강농산을 매입하여 또 다른 공장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를 원천 차단했고, 매입 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

한 친환경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는 부지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하여 장점마을 주민은 물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여기에 환경 공원과 환경 교육장 설립 등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국내외 유사 사례를 살펴 환경도시 상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준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장점마을을 환경 사고는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최초 사례이므로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문제 발생 행정 대응과 사후관리 등 역사적으로 기록·보존을 위한 백서 작업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 오염 사고를 교훈삼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건강회복과 치유를 위한 보건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장점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지하수 토양 등 환경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해 마을 일대에 환경사고 전후 오염도 추이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 장점마을의 훼손된 환경이 복구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과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과 금강농산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축적 우려가 높은 인근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 토양을 모두 제거했다.

## 네추럴에이드, 익산 제3산단 패션단지 투자

익산시는 10일 시청에서 유희숙 부시장 네추럴에이드 정해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제3산단 패션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추럴에이드는 이날 계약에 따라 익산 패션단지 1,800㎡ 부지에 단계적으로 10억여원을 투자하고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 및 준공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추럴에이드는 자체 보유한 편백나무 숲(33,000㎡정도)을 기반으로 생물(生物) 상태의 편백, 라벤더, 로즈마리, 캐모마일 및 건조 원료를 사용한 한방추출물 등에 이르기까지 식물 소

재의 천연 에센셜 오일, 하이드로졸 워터, 120여종의 추출물 등의 화장품 원료를 개발·생산하는 자연친화제품 전문업체이다. 2013년 회사설립 후 천연정유 추출장치 특허출원, 벤처기업 인정,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하이드로콜 자외선 살균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성장과정을 거쳐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영역을 위하여 제3산단내 패션단지에 동지를 틀게 되었다.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은 "기업의 동반자로 익산시를 선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익산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신영시장, 자체 청결활동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 내 분위기의 전환을 위한 자체 청결활동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군산시는 신영시장 상인회(회장 송기섭)가 시장 내 방역 및 덕장주변 제초작업과 동시에 자체청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결활동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불안감과 감염우려로 시장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88개 점포 상인 모두가 참여하는데 실시했다. 상인 중 김모씨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청결활동은 어려울 때 일수록 상인들끼리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세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전 전문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손을 맞잡았다.

## 군산시 · 한국서부발전 '손 잡았다'

### 세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성공적 추진 협약

군산시가 '세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전 전문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손을 맞잡았다. 군산시는 10일 11시, 군산시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익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협약은 '세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수익 공유,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 EPC 업무의 효율적 관리 △전력판매 단가 협의 및 장기고정계약체결 △사업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금융주

선(지문)사 선정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본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시민 주도의 시민참여형사업(총사업비의 80%이내 시민참여, 7% 수익률 제공)으로 진행되며 발전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발전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서부발전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수익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SM스틸, 군산공장 준공

### 스테인리스 후판 사업 공략

에스엠스틸(주)이 군산에 공장을 준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내 재계 35위(2019년 기준)인 SM그룹의 제조 부문 계열사인 에스엠스틸(주)이 10일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스테인리스 후판 군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박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4년 한국 최초 포스코 스테인리스 지정 가공센터로 출발한 에스엠스틸(주)은 스테인리스 후판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총부지 67,000㎡, 연산 10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로 구성했다. 스테인리스 후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용 진공 챔버 및, 발전 설비, 담수화 설비, LNG 운반선, 특수 화학물질 운반선 등 중화학 공업 분야에 고급 소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앞으로 에스엠스틸(주)은 신규 스테인리스 후판 사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 국내 후판 총수요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재 시장을 공략하고, 또한 포스코와의 적극적인 공동 개발을 통해 특수강종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급자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SM그룹 전북도, 군산시는 함께 생존해야 할 '생명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에스엠스틸(주)이 국내 최고의 복합 스테인리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과 동시에 세계 스테인리스 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벼생력재배 기술 보급 군산시, 일손부족 해결

군산시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논잡과 직파재배와 드론모심기 재배기술을 활용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에 나섰다. 9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무논잡과 직파재배 기술은 8조식 전용 이앙기로 한 번에 5~6알씩 씨를 뿌리고 즉조시비와 제초까지 해결하는 1석 3조 재배 기술로 모를 기른다. 직파재배는 잡초생비(앵미) 방제와 잡초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계이앙과 비교해 수량 품질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획기적인 기술로 고려된 농촌사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옥산면 두병량 농가는 "벼 무논잡과 직파재배 기술은 기계이앙과 비교해 볼 때 못지않게 생략만으로도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특화된 효과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합동 점검반 구성 통학차량 안전관리 점검

익산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익산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익산 시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익산시가 보유한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과 통학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및 경찰서에서 신고된 자료를 모두 대조해 통학버스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장치 안전여부(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접수 조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